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

김 인 숙**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사회사업에서 여성은 아동이나 노인 등과 같은 다른 대상층에 비해 비교적 관심을 덜 받아왔다. 설혹 관심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가족의 문제와 연관하여 다루어졌다. 여성은 거의 항상 母性이라는 이름하에 가족성원을 돌보는 '보호자(carer)'로서의 역할을 기대받았을 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가족내에서 여성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가족성원보다도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처할 수 있고, 이는 곧 여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¹⁾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족의 여성일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비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상의 문제란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를 말한다. 심리적 디스트레스란 생리, 신체적인 변화(예를들면, 손이 떨리고 땀이 나거나 수면장애가 있는 것)와 무드(mood)상의 변화(예를들면, 약한 정신력,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불유쾌한 지각상태를 말한다(P.A. Thoits, "Dimensions of Life Events that Influ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 H.B. Kaplan(ed.), *Psychological Stres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p.84). 따라서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DSM-III-R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식적인 임상적 진단범주에 속한 특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여성이나 중산층 여성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정신건강 상태가 더 나쁘며, 특히 빈곤여성은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 좌절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러한 여성의 정신건
강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분석에 기반한 개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여성이 처한 생활의 환경과 관련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활주변의 환경
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조정과 개입을 통해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중의 하나인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1980년
대 들어서면서 사회사업실천 분야에서 사정도구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생태체
계적 접근과 이에 근거한 생활모델(life model)과 연관되면서, 사회사업가들이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의 주요 개념으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만일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현재 사회사업실천의 주요 관심중의 하나인 '사
회적 지지'와 관계가 있다면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지칭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환경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빈곤여성
과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그들의
역할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정의 정신,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칭하
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개념이 사회사업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것이 사회사업의 주요 목표인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저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Krinitzky, Welfare Dependenc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udy of Puerto Rican Women
in New York City, PH.D.diss., New York University, 1990, p.6).

- 2) 손덕수, "도시빈곤과 빈민여성",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문제연
구원(편), 서울:민중사, 1983, 9-128; N.Krinitzky, *ibid*, 1990. D.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London/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82.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신건강의 구조는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로 구성된다.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표현되고, 부정적인 상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로 언급되는데 주로 우울과 불안, 행동과 정서의 통제 상실 등을 포함한다.³⁾ 따라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및 소외 등의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⁴⁾ 특히,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한 증상외에도 일반 정상인의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언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개념은 특정 자극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남성과 비교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정신과 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입원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신경증 발병률에서는 주부들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중산층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최동숙(1989)의 연구에서도 디스트레스의 수준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C.T. Veit & J.E. Weir,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1983, pp.730-742; 권경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6쪽에서 재인용.

4)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우울'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우울적 증상은 여성이 가장 빠지기 쉬운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고 일상경험적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긴장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최동숙, "부부간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76, 1989, p.3.)

5) J.P. Newmann,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Depression", Social Services Review, 61, 1987, pp.447-468.

6) 민병근 外, "정신과 입원환자의 통계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4, 1975, pp.171-188; 김진국 & 이현우, "히스테리아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3, 1974, pp.475-481.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성의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다른 인구층에 비해 확실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성이 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한지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혹자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여성의 권력부재를, 혹자는 문화적 특성이나 성역할을 그리고 또다른 혹자는 생활상의 환경적 요인을 들어 이를 설명한다. 어쨌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한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중산층 여성을 포함한 일반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정신건강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우울을 중심으로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빈곤계층에 속한 여성들이다.⁷⁾ 이러한 빈곤층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상태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빈곤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 현장연구에서는 빈곤여성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사회구조에 대해 무력하게 느끼는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⁸⁾ 미국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한 한 연구에서도 빈곤여성들은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의, 식, 주, 교육 및 의료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과 무력감 및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이처럼 빈곤여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처한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디스트레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여성의 이러한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포함한 그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사업개입의 주요 표적이 되어야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환경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태학적 연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¹⁰⁾ 사회사업분야에서도 체계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이 도입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도구로써 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도구로 사용한

7) D. Belle(ed.), op.cit., 1982, p.12.

8) 장세화 등, "여성자립을 위한 현장연구1: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4, 1987, pp.220-266.

9) B.H. Wolf, Low-Income Mothers at Risk:Psychological Effects of Poverty Related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 1987, p.36.

10) B.H. Gottlieb,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London:Sage Publications, 1981, p.12.

다는 것은 곧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환경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혼란의 가장 큰 근원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있다. 혹자는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안에 사회적 지지가 포함된다고 보고, 다른 혹자는 이 반대를 주장하며 또 다른 혹자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기능적 개념이라면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개념으로 간주된다. 즉,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기능적 개념인 반면, 사회적 관계망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의 제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유대를 갖춘 한 사람 이상으로 연계된 관계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 두개념은 서로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해되어야 그 온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의 양상을 파악해야함은 물론 그 망에 포함된 관계들의 質(기능)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망개입을 통한 사회사업실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인 특성을 위주로 하고 구조적 특성은 지지의 출처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정도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여러 연구들이 이 양자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에 負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¹¹⁾ 즉,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이다. 이를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에 적용해 본다면, 중산층 여성보다는 빈곤 여성이 사회적 망을 통한 지지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낮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유용하다는 일반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반드시 사회적 지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한 불이익도 있을 수 있음을

11) G. Brown & T. Harris,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R.L. Leav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983, pp.3-21; 모경빈, 성인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오경옥, 정신질환자와 일반성인의 사회적 지지, 생활사건, 우울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보여준다.¹²⁾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개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한 Belle(1982)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빈곤한 여성들에게 원조와 정서적 지지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이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그리고 이 양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는 그 개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이다. 그 중에서도 결혼상태와 소득수준, 그리고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결혼상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¹³⁾ 그리고 거의 모든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 사회적 지지는 낮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았지만,¹⁵⁾ 교육수준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¹⁶⁾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문제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12) G. Andrew, C. Tennant, D.M. Hewson, & G.E. Vaillant, "Life Events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Style, and Risk of Psychological Impairmen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6, 1978, pp.307-316; D.Belle(ed.), op.cit.,1982.

13) L. Pearlin, & J. Johnson, "Marital Status, Life Strai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977, pp.704-715; Lieberman, "Social Sources of Emotional Distress", in R. Simmons(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Vol.1, Greenwich, Conn: Jai Press, pp.217-248.

14) J. Turner, & S. Noh, "Class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Among Women: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1983, pp.2-15; C. Ross & J. Huber, "Hardship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1985, pp.312-32007.

15) L. Pearlin & M. Lieberman, op.cit., 1979, pp.217-248; C. Ross & J. Huber, op.cit., 1985, pp.312-327; 권경희, 앞의 책, 1985.

16) 김윤주,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7

정도에는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는 어떠한가하는 것이다. 셋째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역과 출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첫번째와 두번째 연구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러번 언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빈곤여성과 중산층여성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하겠다. 세번째 연구문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출처를 중심으로 어느 영역과 출처가 빈곤여성 및 중산층 여성 각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봄으로써, 두 여성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활용을 통한 사회사업 개입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세 연구문제 중 첫번째와 두번째 연구문제는 단순히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거나 그 관계의 방향과 정도만을 알아보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혼상태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사회적 지지나 심리적 디스트레스 혹은 이 양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 차이 및 이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¹⁷⁾

첫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된 가설은 사회적 지지의 경우, 총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모두에서 빈곤여성이 중산층 여성보다 지지의 정도가 낮을 것임을 설정하였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경우는 이의 지표로 설정한 우울과 불안 모두에서 빈곤여성이 중산층 여성에 비해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두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역을 빈곤여성의 경우 물질적 지지, 중산층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지로 설정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출처는 두 집단 모두에서 가족이 가장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2. 표집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서베이 조사설계(survey research)에 의해 이루어졌다. 빈곤여성에 대한 표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여성(母)중 120명을 표집하였다. 생활보호대상가구 여성중에서도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여성을 표집하

17) 여기서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적 통제방법(Analysis of Covariance, Partial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였다. 표집지역의 선정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부천시 춘의동에서 43명, 서울시 가양동(1단지)에서 24명, 면목동에서 32명, 중계동(3단지)에서 21명을 표집하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질문지를 이들에게 가가기입하게 하는 경우 이들의 학력수준이 낮아 설문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산층 여성의 경우는 성공회대학(45명)과 가톨릭대학(성심교정:75명)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 자신이 속한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서 12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수집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전달케 하여 어머니가 스스로 기입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개념은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이다. 이 두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기능적 속성을 중심으로 사회망 구성원들(가족, 친구, 친지, 이웃, 종교인, 전문인)을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척도는 김인숙(1994)이 박지원(1985)의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재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¹⁸⁾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가지 사건과 상황을 접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긴장이나 고통을 파악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우울과 불안의 정도로 측정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이기 때문이다.¹⁹⁾ 여기서 우울은 Zung이 개발한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를 사용하였고, 불안은 Spielberger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Zung의 우울 척도도는 국내의 연구²⁰⁾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Spielberger의 불안 척도는 국내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

18) 김인숙(1994)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767로 나타나 그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타당도는 동시적 타당도와 구성체 타당도의 실시를 통해 사회적 지지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김인숙,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78-80.

19) Krinitzky, op.cit., 1990; J.H. Ricard, A Study of the Social Origins of Clinical Depression in Black Women, D.S.W.diss.,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85; D. Belle, op.cit., 1982; G. Brown & T. Harris, op.cit., 1978;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0) 오경옥, 앞의 책, 1990; 김인숙, 앞의 책, 1994.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한 결과 표본의 표집이 연구대상을 대표하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즉, 중산층 여성에 대한 표집에 있어서 중산층 여성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넓어 연구자와 관계가 있는 대학의 학생의 학부모만을 표집대상으로 한 점이 그것이다. 또한 중산층 여성의 경우 통제변수로 설정한 결혼상태별 표집에 있어 사별이나 이혼, 별거중인 중산층 여성을 표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편과 동거중인 중산층 여성의 수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²¹⁾ 따라서 결혼상태를 통제변수로한 공변량분석의 경우에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21) 남편과 동거중인 중산층 여성은 115명,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중산층 여성은 5명을 표집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백분율(빈도)		
		빈곤여성	중산층 여성	계
연령	39세 이하	30.8(37)	1.7(2)	16.3(39)
	40-59세	52.5(63)	97.5(117)	75.0(180)
	60세 이상	16.7(20)	0.8(1)	8.8(21)
	계	100(120)	100(120)	100(240)
결혼상태	기혼(동거)	50.8(61)	95.8(115)	73.3(176)
	사별	38.3(46)	3.3(4)	20.8(50)
	이혼	8.3(10)	0.8(1)	4.6(11)
	별거	2.5(3)	-	1.3(3)
계	100(120)	100(120)	100(240)	
교육수준	무학	22.5(27)	-	11.3(27)
	국졸	39.2(47)	5.8(7)	22.5(54)
	중졸	20.0(24)	14.2(17)	17.1(41)
	고졸	15.0(18)	52.5(63)	33.8(81)
	대졸	3.3(4)	26.7(32)	15.0(36)
	대학원졸	-	0.8(1)	0.4(1)
계	100(120)	100(120)	100(240)	
소득수준	50만원 이하	90.0(108)	-	45.0(108)
	51-100만원	10.0(12)	9.2(11)	9.6(23)
	101-150만원	-	26.7(32)	13.3(32)
	151-200만원	-	41.7(50)	20.8(50)
	201-250만원	-	9.2(11)	4.6(11)
	251-300만원	-	7.5(9)	3.8(9)
	300만원 이상	-	5.8(7)	2.9(7)
계	100(120)	100(120)	100(120)	
가족형태	핵가족	83.3(100)	90.0(108)	86.7(208)
	확대가족	8.3(10)	10.0(12)	9.2(22)
	조부모 + 손자녀 가족	8.3(10)	-	4.2(10)
계	100(120)	100(120)	100(240)	

2.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 비교

1) 사회적 지지의 정도 비교

<표 2> 영역 및 출처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 (N=240)

변수		빈곤여성		중산층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영역	정서적 지지	56.175	31.302	106.275	29.367
	물질적 지지	23.508	15.042	54.725	15.718
	정보적 지지	33.175	23.048	71.892	21.175
출처	가족	2.425	2.019	3.708	2.084
	친척	1.408	2.171	4.650	2.935
	친구	.942	1.807	3.917	2.565
	이웃	1.317	2.192	3.317	2.884
	종교인	1.442	2.462	3.017	3.269
	전문인	.067	.310	.425	1.164
	총 지지자수	7.462	6.384	20.733	13.636
총 지지자수	112.892	63.636	233.058	66.896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 여성의 지지정도는 지지자의 수나 지지의 영역 그리고 지지의 출처 모두에서 빈곤여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빈곤여성에게 지지를 주는 사람은 겨우 7명 정도 인데 반해 중산층 여성의 경우는 무려 20명이나 되었고, 총 지지점수도 중산층 여성이 빈곤여성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영역에서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가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지의 출처에서는 빈곤여성은 가족으로 부터 중산층여성은 친척으로 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두 집단에서의 지지의 차이가 과연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정도 차이검증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p
총사회적 지지	빈곤여성	112.892	66.896	14.26	.000
	중산층 여성	233.058	63.636		
정서적 지지	빈곤여성	56.175	31.302	12.79	.000
	중산층 여성	106.275	29.367		
물질적 지지	빈곤여성	23.508	15.042	15.72	.000
	중산층 여성	54.725	15.718		
정보적 지지	빈곤여성	33.175	23.048	13.55	.000
	중산층 여성	71.892	21.175		

위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의 모든 영역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여성은 중산층 여성에 비해 이들 삶의 주변으로 부터 받는 지지가 낮았다.

그런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및 결혼상태 등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과연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통제변수중 '결혼상태'는 명목변수로서 ANCOVA에 적절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2개 범주로 재분류(남편과 동거하는 기혼상태와 남편과 사별, 이혼, 별거하는 분리상태)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는 현재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산층 여성이 빈곤여성보다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편과 동거하는 중산층 여성이 남편과 동거하는 빈곤여성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사별, 이혼 혹은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사이의 사회적 지지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표 4〉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총사회적 지지에 대한 공분산분석(ANCOVA) 결과(N=176)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of F
공변수	573398.323	2	28669.161	71.312	.000
교육수준	113737.659	1	113737.659	28.290	.000
소득수준	150637.768	1	150637.768	37.469	.000
여성의 계층	67079.736	1	67079.736	16.685	.000
설명변량	640478.059	3	213492.686	53.103	.000
잔차변량	691504.486	172	4020.375		
총변량	1331982.545	175	7611.329		

소득수준, 결혼상태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빈곤 여성의 지지수준 보다 높으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남편과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에만 중산층 여성이 빈곤여성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경우에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모든 경우에도 교육수준과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산층 여성이 받는 지지도가 빈곤 여성이 받는 지지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 그렇고 남편과 이혼, 사별, 혹은 별거중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중산층 여성의 지지정도와 빈곤층 여성의 지지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3> <표 4> <표 5>를 근거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산층 여성이 빈곤여성에 비해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남편과 동거중인 여성들에 한해서 중산층 여성이 빈곤여성에 비해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표 5〉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N=176)

종속 변수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of F
정서적 지지	공변수	104911.859	2	52455.929	61.613	.000
	교육수준	20529.560	1	20529.560	24.113	.000
	소득수준	27872.335	1	27872.335	32.738	.000
	여성 계층	8961.637	1	8961.637	10.526	.001
	설명변량	113873.496	3	37957.832	44.584	.000
	잔차변량	146436.481	172	851.375		
	총변량	260309.977	175	1487.486		
물질적 지지	공변수	38521.895	2	19260.948	85.774	.000
	교육수준	7420.536	1	7420.536	33.045	.000
	소득수준	10365.821	1	10365.821	46.161	.000
	여성 계층	5487.250	1	5487.250	24.436	.000
	설명변량	44009.146	3	14669.715	65.328	.000
	잔차변량	38623.582	172	224.556		
	총변량	802632.727	175	472.187		
정보적 지지	공변수	56441.755	2	28220.878	59.084	.000
	교육수준	12058.845	1	12058.845	25.247	.000
	소득수준	13898.141	1	13898.141	29.097	.000
	여성 계층	9034.495	1	9034.495	18.915	.000
	설명변량	65476.250	3	21825.417	45.694	.000
	잔차변량	82154.244	172	477.641		
	총변량	147630.494	175	843.603		

2)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 비교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지표로 설정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우울과 불안의 정도 및 그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우울의 평균점수는 빈곤여성이 51.958, 중산층 여성이 39.525로서 12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불안의 평균점수도 빈곤여성이 53.208, 중산층 여성이 41.142로서 역시 12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우울 및 불안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중산층 여성보다는 빈곤여성이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디스

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차이(N=240)

심리적 디스트레스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우울	빈곤여성	51.958	11.914	-9.23	.000
	중산층 여성	39.525	8.696		
불안	빈곤여성	53.208	13.529	-8.26	.000
	중산층 여성	41.142	8.565		

그러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변수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 <표 8>와 같다.

앞의 사회적 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중 ‘결혼상태’는 명목변수로서 공변수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결혼상태별(2개 범주로 재분류함: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였다. <표 7>은 남편과 동거중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이고 <표 8>는 남편과 사별, 이혼, 별거중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 7>에 의하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우울과 불안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이 속한 계층(중산층 여성 혹은 빈곤여성)은 우울 및 불안의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했을 때 남편과 동거중인 중산층 여성은 남편과 동거중인 빈곤여성보다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이혼, 사별 혹은 별거중인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표 8>을 참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변수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보다 높았으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남편과의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설정했던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표 7〉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디스트레스에 대한 공분산분석의 결과(N=176)

심리적 디스트레스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of F
우 울	공변수	7740.952	2	3720.476	44.629	.000
	교육수준	2110.465	1	2110.465	25.316	.000
	소득수준	1339.176	1	1339.176	16.064	.000
	여성 계층	97.411	1	97.411	1.168	.281
	설명변량	7538.363	3	2512.788	30.142	.000
	잔차변량	14338.819	172	83.365		
	총변량	21877.182	175	125.012		
불 안	공변수	7933.860	2	3966.930	43.004	.000
	교육수준	1883.993	1	1883.993	20.424	.000
	소득수준	1762.204	1	1762.204	19.103	.000
	여성 계층	8.428	1	8.428	.091	.763
	설명변량	7942.288	3	2647.429	28.700	.000
	잔차변량	15866.252	172	92.246		
	총변량	23808.540	175	136.049		

〈표 8〉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N=64)

심리적 디스트레스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of F
우 울	공변수	1362.993	2	681.496	4.654	.000
	교육수준	172.355	1	172.355	1.177	.282
	소득수준	645.279	1	645.279	4.406	.040
	여성 계층	19.487	1	19.487	.133	.717
	설명변량	1382.480	3	460.827	3.1427	.032
	잔차변량	8786.458	60	146.441		
	총변량	10168.938	63	161.412		
불 안	공변수	1749.130	2	874.565	5.083	.009
	교육수준	191.592	1	191.592	1.114	.296
	소득수준	873.959	1	873.959	5.080	.028
	여성 계층	95.251	1	95.251	.554	.460
	설명변량	1844.381	3	614.759	3.573	.019
	잔차변량	10322.979	60	172.050		
	총변량	12167.359	63	193.133		

3.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비교

어떠한 변수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단순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9> <표 10>과 같다. <표 9>와 <표 1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빈곤여성(-.81, -.69)과 중산층 여성(-.73, -.71) 모두에서 負的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중 결혼상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수준은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負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빈곤여성의 경우에만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負的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단순상관관계(zero-order correlations)(N=120)

변 수	빈 곤 여 성				
	①	②	③	④	⑤
①사회적 지지	1.00				
②교육수준	.30**	1.00			
③소득수준	.31**	.24*	1.00		
④결혼상태	-.02	.05	-.01	1.00	
⑤심리적 디스트레스	-.81** (-.69**)	-.30** (-.32**)	-.33** -.34**	.11 .11	1.00 (1.00)

* p<.01 ** p<.001 ; ⑤는 우울과 (불안)을 나타냄 ; 결혼상태(기혼(동거), 이혼, 사별, 별거)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는 Eta 값.

이러한 결과는 아무런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중산층 여성과 빈곤여성을 막론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10〉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단순상관관계(zero-order correlation)(N=120)

변 수	빈 끈 여 성				
	①	②	③	④	⑤
①사회적 지지	1.00				
②교육수준	.16	1.00			
③소득수준	.22*	.11	1.00		
④결혼상태	-.14	.03	-.15	1.00	
⑤심리적 디스트레스	-.73**	-.18	-.26*	.02	1.00
	-.71**	-.16	-.37**	.03	(1.00)

* $p < .01$ ** $p < .001$; ⑤는 우울과 (불안)을 나타냄 ; 결혼상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는 Eta 값을 나타냄.

이와같은 결과가 과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그리고 결혼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²²⁾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와 같다. 결혼상태에 대해서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석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결혼상태를 통제하고서도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는 負的 관계를 보여주었고 그 관계의 정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낮았다. 따라서 두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負的 관계에 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연구문제인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과 출처에 관한 분석결과는 위의 <표 12>와 같다.

22) 부분상관계수의 유의도 검증은 부분상관관계 계수의 유의도 검증공식(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1992, 554쪽 참조)에 근거하여 F값을 산출하고 F분포표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11〉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2차 부분상관관계

변 수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빈곤여성	남편과 동거	-.806**	-.594**
	남편과 비동거	-.740**	-.676**
중산층 여성	남편과 동거	-.713**	-.693**
	남편과 비동거	-.720**	-.685**

** p<.001

〈표 12〉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등시투입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우 울		불 안	
		Beta	SigT	Bera	SigT
빈곤여성	정서적 지지	-.625503	.0000	-.549870	.0000
	물질적 지지	-.333024	.0094	-.479412	.0022
	정보적 지지	.121371	.3469	.312570	.0479
	상수	69.451509	.0000	70.680254	.0000
	R ²	.68222		.52982	
	F	83.00942(SigF=.0000)		43.57139(SigF=.0000)	
중산층 여성	정서적 지지	-.428870	.0186	-.640080	.0000
	물질적 지지	-.202586	.2186	-.073688	.6624
	정보적 지지	-.108494	.5055	.008252	.9607
	상수	62.357013	.0000	62.939683	.0000
	R ²	.51746		.49011	
	F	41.46483(SigF=.0000)		37.16692(SigF=.0000)	

<표 12>에 의하면,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은 정서적 지지(beta값이 -.625503과 -.549870으로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하위 영역 또한 정서적 지지(beta값이 -.428870과 -.640080으로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여성에게는 물질적 지지가 중산층 여성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지지의 출처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시투입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우 울		불 안		
	Beta	SigT	Beta	SigT	
빈곤여성	가족	-.378923	.0000	-.327779	.0000
	친척	-.328526	.0000	-.275113	.0002
	친구	-.348633	.0000	-.298978	.0000
	이웃	-.213106	.0002	-.200919	.0047
	종교인	-.2722771	.0000	-.246884	.0005
	전문인	-.046176	.4063	-.017817	.7960
	상수	68.974666	.0000	69.914634	.0000
	R ²	.67217		.49512	
	F	38.61449(SigF=.0000)		18.46919(SigF=.0000)	
중산층 여성	가족	-.114811	.2184	-.100098	.2923
	친척	-.140697	.1241	-.056165	.5455
	친구	-.190087	.0261	-.296562	.0008
	이웃	-.350397	.0000	-.324031	.0000
	종교인	-.248834	.0003	-.206779	.0032
	전문인	-.191562	.0041	-.186212	.0062
	상수	61.886992	.0000	62.032523	.0000
	R ²	.55777		.53988	
	F	23.75367(SigF=.0000)		22.09842(SigF=.0000)	

<표 13>에 의하면,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는 $p < .05$ 수준에서 전문인을 제외한 모든 출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산층 여성의 경우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종교인으로 부터의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는 가족(beta값이 -.378923, -.32779)이었고,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는 이웃(beta값이 -.350397, -.324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출처가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에서 가족일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V.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측면에서 빈곤여성이 중산층 여성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지가 이들 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의 실천적 함의 및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중산층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곧 빈곤여성은 중산층 여성에 비해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덜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빈곤여성을 상대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적 지지의 개발을 위해 이들 빈곤여성이 가진 사회적 지지의 종류 및 그 기능에 관심을 돌려야 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했을 경우에는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만 빈곤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결혼상태와 관련한 표본 선정시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즉,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 혹은 별거한 여성을 적게 표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 여성의 표집시 이혼이나 사별, 별거중인 여성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표본수를 늘린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상한 바 대로 빈곤여성은 중산층 여성에 비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이들 두 여성 집단간에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빈곤여성이나 중산층 여성을 막론하고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특히,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침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빈곤한 여성의 경우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탁아소 등과 같은 곳을 자연스럽게 접촉하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접촉하든지간에 사회복지사 측에

서 먼저 이들을 찾아나서서 이들과 초기관계를 형성토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빈곤한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찾아나서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정도는 낮았다. 이는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빈곤여성이건 중산층 여성이건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의 강화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 진다면 이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지지망을 확대한다든가, 관계망의 지지적 기능을 향상시킨다든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지지집단을 형성하여 의도적 개입을 하든가 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負的인 관계에 있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갖은 사람을 병자 혹은 환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았던 것에서 문제의 소재가 사회적 환경(사회적 지지)속에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여성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그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의 여러 수준의 어디든지 개입할 수 있고,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실제상의 원조(practical assistance)와 치료적인 원조(therapeutic helping)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 모두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넷째,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지지(물질적, 정보적 지지)가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인식되거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는 주변으로 부터 물질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영향력이 적게 나온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는 통로와 프로그램 및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출처면에서는 빈곤여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지출처는 가족이었고 중산층 여성의 경우는 이웃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빈곤여성은 가족으로 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중산층 여성은 이웃으로 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는 전문인을 제외한 모든 출처로

23) A. Corob, Working with Depressed Women: A Feminist Approach, Aldershot:Gower, 1987, p.6.

부터의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여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한 접근시 모든 출처로 부터의 지지를 활용하되 가족관계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으로 부터의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여성의 경우는 가족보다는 주변의 이웃관계속에서 이들과 접촉하고, 인정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직업을 원하는 경우 직업을 알선한다든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한다든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목적을 가진 자조집단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사업의 주요 초점중의 하나는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적 자원의 하나인 사회적 지지가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활용이 유용하다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개입도구로써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20세기 말 한국에서 살아가는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에게도 그 적용의 유용성이 있음을 시사받은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의 역할과 기능 및 그 메카니즘은 물론,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의 어느 측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